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례 연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Constructing Appraisal System of Manuscripts: Focusing on Korea Democracy Foundation Archives

김명훈(Myoung-Hun Kim)*

현종철(Jong-Chul Hyun)**

목차

- | | |
|------------------------------|--------------------|
| 1. 서론 | 3. 사료 평가 프로세스 수립 |
| 2.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 현황 분석 | 3.1 사료 평가 프로세스 설계 |
| 2.1 사료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3.2 사료 평가등급 및 대상범주 |
| 2.2 사료 평가 상의 특성 및 프로세스 설계 방향 | 4. 사료 관리조치 차별화 전략 |
| | 5. 결론 |

<초록>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사료를 토대로,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는 가치 선별 논리를 지향하면서도, 가치의 경중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를 통해 사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성을 최적화시킨다는 전략을 구현하였다. 그동안 중복본 위주의 폐기대상을 골라내는 소극적 선별 논리를 넘어 사료의 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질서가 부재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 처리에 당면하여 한정된 자원 활용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매뉴스크립트 기관들에 좋은 선례를 제공해준다.

주제어: 평가, 평가체계, 선별, 매뉴스크립트

<ABSTRACT>

This article shows a case of constructing appraisal system of manuscripts based on record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This appraisal system of manuscripts not only intends to select records according to value but also realizes a strategy that maximizes efficacy of resources for record management through distinction of record management process based on value of records. After all, this strategy provides manuscript repositories a beneficial benchmarking case of appraisal system of manuscripts which are confronting with disposing problem of enormous mount of records without original order, and are intending maximization of efficacy of resources for record management through distinction of record management process based on value of records.

Keywords: appraisal, appraisal system, selection, manuscript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강사(sjmhwdhappy@hanmail.net)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료관리팀장(hjc0123@kdemo.or.kr)

■ 접수일자 2008년 5월 1일 ■ 수정일자 2008년 6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20일

1. 서론

20세기 이후 기록물 생산량의 급증과 함께 평가(Appraisal)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핵심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로 부상되어 왔다. 모든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가용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범주의 기록물만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인하여 어떠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선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론과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왔다.¹⁾

하지만 그간의 평가를 둘러싼 논의들은 주로 공공기록으로 대표되는 아카이브²⁾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는 진리인 라이프사이클 이론에 근거를 둔 셀렌버그의 평가이론이 당시 미국 공공영역의 방대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화된 이래,³⁾ 거시평가(Macro Appraisal) 및 최근 전자기록 환경하의 평가방식으로 새롭게 자리하고 있는 기능평가(Functional Appraisal) 등 대부분의 평가 논리는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평가란 본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생산량을 지닌 공공기록의 처리 문제에 직면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원질서가 거의 부재한 채 산발적으로 수집되는 매뉴스크립트의 경우 공식화된 평가 이론 및 방법론 개발이 어렵다는 점

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매뉴스크립트의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주로 미국 다큐멘테이션 전략과 같이 특정 이슈나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 내지 수집정책에 한해 이루어졌을 뿐(Cumming 1994; Momryk 2001; Phillips 1995), 일정 준거에 기반을 둔 중요 기록물의 선별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특정 주제 등과 관련된 기록물에 한정하여 분산적으로 수집이 이루어지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업무방식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산 당시의 원질서가 부재한 채 개별 기록 단위로 수집되는 매뉴스크립트의 속성 상 체계화된 평가 방식의 수립이 난해하다는 점 역시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매뉴스크립트에 관한 평가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단초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사료를 토대로 한 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제시하려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민주화운동 사료는 이러한 총체적인 활동과정 중에 생산되었거나 입수된 기록으로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사료는 생산 당시의 질서를 유지한

1) 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 및 방법론 소개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mmittee on Archives, 2004. *Bibliography on Appraisal(Draft)*, Paris: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를 참조.
 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로 기록물을 양분하는 구분방식에 대해서는, Mil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정구 역, 서울: 진리탐구, 제1장을 참조.
 3) 셀렌버그 평가이론 형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명훈, 2002.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록학연구』, 6: 21-22를 참조.

채 체계적으로 이관된 것이 아닌, 다수의 기증자 등으로부터 산발적으로 수집된 매뉴스크립트의 속성을 지닌다.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고는 원질서가 부재한 채 아이템 단위로 통제되는 상황에서의 평가 방식 및 방대한 양의 매뉴스크립트 처리에 직면해 한정된 자원 활용상의 효용성을 확보코자 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한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

2.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 현황 분석

2.1 사료 평가 현황 및 문제점

민주화운동 사료를 대상으로 한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평가방식에 관한 분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 사료는 생산기관으로부터의 체계적 이관이 아닌,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나 개인의 무작위적인 기증 내지 위탁을 통해 입수된다. 따라서 입수된 사료의 수집·등록 시 민주화운동 사료에 대한 명확한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료관의 『사료수집및관리업무규정』 제5조에서는 “수집한 사료는 민주화운동 사료로서 지속적 또는 영구적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따라 등록 대상사료와 비등록 대상사료로 구분한다”라고 평가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료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준거 및 평가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료 관리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다. 우선 사료 수집 및 관

리를 양적인 면에 중점화함으로써 질적 담보 없는 양적 증가만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수집된 사료의 세부적인 가치 선별 없이 일괄적으로 등록함으로써, 보존가치 및 활용도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사료 역시 상당수 서고에 보존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둘째, 사료관의 『수집사료선별정리지침(안)』에서는 “민주화운동 사료로서 취급될 것과 그렇지 못한 사료(참고자료 등)로서 취급될 것을 구분하여 사료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체적 방안은 부재한 상태였다. 단지 등록 이후의 검수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등록된 것과 동일한 중복본을 확인하여 폐기목록을 만드는 수준에 평가 업무가 한정되어 있었다.

셋째, 사료의 활용성 측면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지식정보콘텐츠 구축을 통한 이용서비스 확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 사료를 활용하는 내외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고가치 사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 방식이 부재한 현재의 사료관리 프로세스로는 사료 기증자 및 단체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의 실현이 어렵다. 이와 더불어 가치 중심의 사료 등급체계 없이, 수집된 모든 사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등록, 검수, 분류 등을 수행함으로써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는 물론 사료처리 기간의 지연으로 적극적인 이용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수집 이후 사료에 대한 별다른 평가 조치 없이, 중복본을 제외한 모든 사료에 동일한

4) 민주화운동 사료가 지닌 기록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현정, 2006. “수집형 기록관의 전자제어시스템 분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리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 95-98을 참조.

관리조치를 부여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대량의 불필요한 사료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료의 질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사료별 관리조치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도출되며, 이를 위해 사료 관리 프로세스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료평가 기준 및 등급의 설계가 요구되었다.

2.2 사료 평가 상의 특성 및 프로세스 설계 방향

민주화운동 사료의 평가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집합적 단위의 편성 및 통제 방안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민주화운동 사료는 공공기록물처럼 시리즈 및 파일 등 의미 있는 단위로 이관된 것이 아닌, 원질서가 부재한 단일 건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 정황상 비합·반합법적이었던 민주화운동의 속성상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이현정 2006. 97).

이것은 곧 사료의 평가 상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원질서가 부재한 건 단위로 수집되는 관계상 사료관리의 기본 단위는 건으로 책정되어 있고, 따라서 평가 역시 건 단위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사료 간의 전후관계 맥락 파악이 어려운 관계상 사료의 내용을 근거로 건별 가치 판단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아울러 평가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자원, 시간 투입이 매우 크게 됨을 뜻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건 단위 수준에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료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내용 검토를 통해 중요 사료를 선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단 그

동안 내용 분석에 토대를 둔 미시적 평가 방법론이 비판을 받아 온 것처럼, 평가에서의 주관성 개입 및 편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사료 평가 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 프로세스의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우선 민주화운동 사료의 가치에 따른 관리조치의 차별화 전략이다. 최근 평가는 비현용단계에 생성된 2차적 가치를 선별하는 차원을 넘어, 기록물에 내재한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구보존 내지 기록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Bellardo & Bellardo 1992. 3). 하지만 그동안 민주화운동 사료는 가치의 분석 없이 일률적인 관리 조치를 부여하는데 기인하여, 저가치 사료의 누적, 사료의 처리기간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 프로세스 설계 시 사료의 가치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후술할 바대로, 사료의 가치 등급에 따라 등록, 검수 조치의 차별화 및 보존 전략의 차별화 그리고 서비스 전략의 차별화를 시도해, 사료관리에 소요되는 가용 자원 및 인력, 시설 활용상의 최적화 구현을 지향토록 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사료관리 역시 평가 프로세스 설계상의 주안점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관리란 의미는 일정 기준에 따라 가치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일회성 평가 방식이 아닌, 평가를 기반으로 모든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말한다(임나래 2007). 민주화운동 사료의 평가체계 역시 사료관리 상의 유기

적 프로세스들이 평가를 주축으로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해, 관리 사이클을 반복하며 더욱 더 진전된 사료관리가 수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평가 상의 '맥락'(Context)의 중시이다. 기록물은 생산자의 활동과정 중에 생산된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는 고유의 정보를 나타낼 수 없는 일정한 생산맥락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기록이 생성된 활동상의 배경을 파악해 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기록 속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 주게 된다 (Shepherd & Yeo 2003, 30). 최근 사회의 다원화 및 복잡화 추세와 보조를 맞추어, 평가 영역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독일의 마네 헤리츠는 평가를 조직의 활동 과정을 명확하게 포착하는 행위로 정의한 후 기록물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맥락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주요 임무임을 명시하였고(Menne-Haritz 1994), 최근 평가 방식 상의 주류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 역시 기록물의 내용이 아닌 해당 기록물을 생성시킨 맥락으로서의 기능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기록물이 생성된 맥락상의 중요도 위에 평가를 수행케 하고 있다(김명훈 2005, 104-107). 원질서가 부재한 개별 건 단위의 민주화운동 사료의 경우, 이와 같은 생산맥락은 민주화운동 역사 속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 단체, 사건, 사회적 배경이 지니는 의미로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 및 경과, 민주화운동 역사 가운데에서의 중요도 등에 대한 이해 방편으로 가장 타당하기 때문이다(김명훈, 현종철 2006, 155-157). 이를 감안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시기구분

속에서 해당 인물, 단체, 사건 및 시대적 배경이 지니는 역사 흐름상의 위치를 평가의 준거로 책정토록 하였다.

넷째, 명료한 사료 평가 메커니즘 구현 역시 설계상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이는 개별 기록 단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 나타나기 쉬운 평가 상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내용 가치에 따른 평가 논리를 체계화시킨 쉘렌버그 조차도 연구자 및 이용자의 시각에 따라 해당 기록의 가치 판단이 찬차만 별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듯이(Schellenberg 2005, 44-45), 평가에서 주관성의 개입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 시 체계적인 평가 메커니즘이 부재할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으로 평가자마다의 편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개별 평가자 자체의 평가 결과 내에서도 편차가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방대한 양의 개별 건 단위 평가등급 책정 시 평가자의 주관성 및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도 일률화된 평가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료 평가 프로세스 설계의 주요 방향성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생산 당시의 조직구조 및 원질서를 유지한 상태로 이관된 아카이브 성격의 사료군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집된 민주화운동 사료의 경우 단일 기관의 업무활동을 반영한, 원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된 채 대량으로 이관된 기록물 역시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록물군은 개별 건 단위로 통제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원질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철 단위 수준에서 평가등

급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역사 속에서의 맥락 파악과 함께, 기관 자체의 역사 및 기능상의 맥락 속에 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 영역에서 활용해왔던 기관 자체의 조직 및 기능, 역사에 대한 분석 작업과 더불어, 수집된 기록물군에 대한 현황조사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료 평가 프로세스 설계 시 폐기 대상의 최소화 방향 역시 신중히 고려되었다. 폐기 대상 최소화의 전제는 한국 민주화운동이 1948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정된 양의 컬렉션'이라는 점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기록물 각각의 절대적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가치 판단 및 비용 측면에 근거한 폐기는 미래에 재탄생할 수도 있는 기록물의 가치를 소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지금의 가치 판단으로 한정된 양의 사료를 폐기해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영원히 '망각'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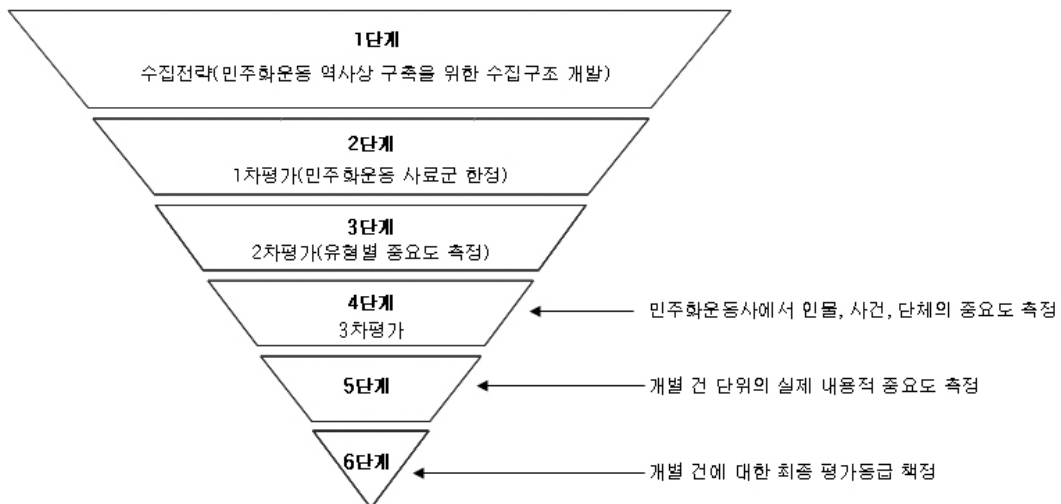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대신, 중요도에 따른 관리조치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비용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3. 사료 평가 프로세스 수립

3.1 사료 평가 프로세스 설계

앞서 살핀 사료 평가 프로세스 설계의 방향성은 최종적으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역피라미드 구조의 평가 프로세스 설계로 귀결된다. 이는 최근의 평가이론에서 주류를 이루는 평가 상의 '하향적 접근' 논리를 도입한 결과로, 과거 미시평가 방법론에서 수행되어 왔던 개별 기록 중심의 가치 선별에 따른 한계를 지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수집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다큐멘테이션 전략이나 체계적인 이관체제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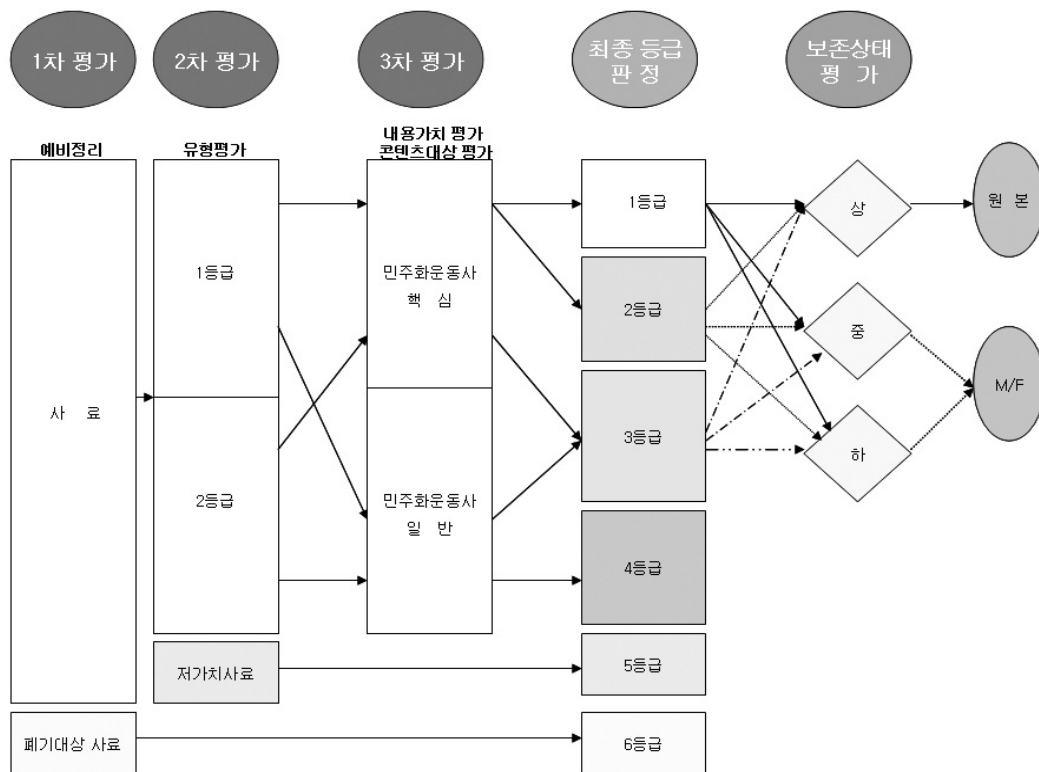


<그림 1> 사료 평가 프로세스 구조

춘 공공기록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의 거시평가 방법론을 원론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양 평가 방법론상의 하향적 접근 방식을 전략적으로 전용하였다. 이는 원질서가 존재치 않는 방대한 양의 사료들에 대해 하나하나의 가치 판단이 가능 자원 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에서 '세부'로 향한다는 보편적 논리를 차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단계 평가 절차를 통해, '민주화운동상 → 사료군 → 사료유형 및 인물, 단체, 사건'에 이르기까지 역피라미드 형태로 중요 대상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좁혀간 다음 최종적으로는 개별 건 단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수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프로세스

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지니게 된다.

<그림 2>에서 1차 평가는 예비정리 단계로, 민주화운동 사료군의 범주를 한정시키게 된다. 즉 수집된 사료를 대상으로 예비정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를 판단해, 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들은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며,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의 유형별로 정리를 실시하게 된다. 여기서 유형별로 사료를 그룹화 시키는 이유는 기록물의 유형이 당대의 문화상을 반영한 기록물을 내용적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일기·수첩·장부 등과 같은 기록물 유형은 해당 기록물의 내용적 범주를 어느 정도 파악할



<그림 2>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 프로세스 모형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있다(Bearman & Lytle 1985-1986, 14-27). 또한 유형별 접근은 방대한 양의 건 단위 가치 판단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절감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사료들은 내용적 유형에 따라 가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 단체의 성명서·결의문·시국선언문·회의록·창립선언문 등과 같은 사료는 단순 접수증이나 개인적인 연하장·칭찬장과 같은 유형보다는 사료의 내용이나 맥락 면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료의 내용적 유형에 따른 그룹화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중요 기록물이 포착될 수 있는 대강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에서 정리된 사료들에 대해 유형별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우선 이 단계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수증, 주소록, 일정표 및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간략 메모,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쇄물 등 민주화운동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대상을 '저가치 사료'로 선별해 5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림 3>에 제시된 『사료 유형평가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사료의 유형적 가치를 1등급(중요 유형)과 2등급(일반 유형)으로 구분하게 된다.

사료 유형평가기준		
유형	가치등급	정의
성명서	1등급	성명서라 명명되어 있고, 정치적·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문서
결의문	1등급	결의문이라 명명되어 있고, 의결한 내용을 적은 글
예배 자료	2등급	신에 대해 경배하는 의식과 관련한 문서/ 종교단체에서 생산
호소문	1등급	호소문이라 명명되어 있고,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글
연하장	2등급	새해를 축하하기 위하여 간단한 글이나 그림을 담아보내는 카드형식의 문서.
서명날인	1등급	어떤 사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름과 씨인(도장/지문)을 한 문서
재판 관련 자료	1등급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데 관련한 재판 문서들
강령	1등급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
정관	1등급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청첩장	2등급	결혼따위의 좋은 일에 남을 초대하는 글발
탄원서	1등급	탄원서라 명명되어 있고,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에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 수신자가 있고, 재판자료인 경우가 많음
건의문(안)	1등급	개인·단체가 내놓은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적은 글
통보·통지문	1등급	주로 공기관이나 회사 등이 어떤 사안의 결과·사실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알리는 글
안내문	1등급	어떤 사정이나 사실 및 행사나 단체에 대해 알려주는 문서
창립취지(선언)문	1등급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새로 생김을 알리는 유인물 또는 자료집 형태의 문서
접수증	2등급	처리할 문서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진정서	1등급	어떤 사건에 대한 전후사정을 진술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문서
집회신고서	1등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에 대해 미리 해당 관공서에 허가를 받는 문서
연설문	1등급	대중앞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주장·의견을 진술한 글로 선거, 심포지움, 대중, 농성중 즉흥 연설문 등이 있음

<그림 3> 사료 유형평가 기준 샘플

3차 평가는 개별 사료의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중요도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평가에 출처주의를 근간으로 한 생산맥락적 접근을 도입한 것으로, 중요한 사건 및 인물, 단체일수록 해당 사료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높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Schellenberg 2005. 43). 이러한 접근은 방대한 양의 기록 평가에 소요되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 및 생산연원 파악을 통한 기록의 이해성 확보에도 일조하게 된다(Eriksen 1994). 이와 같은 논리 하에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맥락상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역사상의 사건, 단체, 인물이 지닌 중요도를 근거로 아래에 제시된 『사료 내용평가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 이를 검색하여 사료를 핵심 대상과 일반 대상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평가단계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사료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최종 평가등급 판정단계에서는 사료 유형평가의 결과로 부여된 1·2등급과 사료 내용평가의 결과로 부여된 핵심·일반대상을 종합하여 사료에 대한 평가등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평가등급 판정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대로 평가에 개입되는 주관성 개입의 최소화 및 명료한 평가 메커니즘 구현을 지향한 것으로, 유형평가가 1등급이면서 내용평가가 핵심대상이면 최종등급이 1~2등급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유형평가가 1등급이면서 내용평가가 일반대상이거나 유형평가가 2등급이면서 내용평가가 핵심대상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책정되며, 유형평가가 2등급이면서 내용평가가 일반대상인 경우에는 최종등급이 4등급으로 책정된다.

사료 내용평가 기준	
사건명	년도
인민혁명당사건	1964
통혁당 재건사건	1968~1979
3선개헌반대운동	1969
사상계 필화사건(김지하 시인 '오적'시 사건과 '비어'시 사건)	1970
전태일 분신사건	1970
전태일추모식사건	1970
월간 '다리'지 필화사건	1971
광주대 단지사건	1971
천주교 원주교구의 부정부패추방운동	1971
전남대 [합성] 사건	1973
남산부활절 연합예배사건	1973
김대중납치사건	1973
서울문리대 시위사건	1973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1973
민청학련사건	1974
인혁당사건	1974

〈그림 4〉 사료 내용평가 기준 샘플: 민주화운동 사건

물론 이러한 공식화된 평가등급 판정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사료가 지닌 가치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민주화운동 상의 핵심 사건, 단체, 인물 관련 사료라 할지라도 상세한 내용 검토 없이는 해당 사료의 가치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민주화운동 역사상의 핵심 인물과 관련된 사료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연하장이나 청첩장 등은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핵심 사료로 판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사료라 할지라도 민주화운동의 맥락상 핵심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사건, 단체, 인물 이외에도 민주화운동의 중요 배경에 관한 내용이나 사료 자체의 내재적 가치, 희소성, 박물관적 가치 등도 고려하여 해당 사료의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 역시 마련하였다.

3.2 사료 평가등급 및 대상범주

이러한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책정된 평가등급은 물론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모든 기록물은 당대 사회 가치관의 투영일 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기록물 각각의 절대적 가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Booms 1987). 민주화운동 사료 역시 개별적으로 지니는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별 사료에 책정된 평가등급은 상대적인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감안할 때,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민주화운동 사건 및 인물, 단체를 등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다는 사료관 아키비스트 및

민주화운동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사료의 평가등급 책정은 컬렉션 내의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료의 가치에 따른 관리조치의 차별화를 지향하는 사료관리 상의 전략적 측면 역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료관에서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사료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등급의 객관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은 기록학, 역사학, 행정학, 보존학 등의 민간전문가와 기관내 권위있는 내부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핵심기능으로 수집시의 사료가치 평가, 정리과정에서의 평가등급 체계화, 사료폐기의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체계적이면서도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등급의 정의 및 대상의 범주화가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개별 건 단위로 행해지는 관계로 인해 평가 상의 주관성 배제 및 평가자마다의 편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서서도 언급한 명료한 평가 메커니즘 구현을 위해서는 각 등급별의 명확한 정의 및 책정방식, 그리고 대상 범주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프로세스를 통해 책정된 6개의 등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각 등급별 정의 및 대상범주를 설정하였다.

우선 1등급은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상의 핵심 인물, 사건, 단체 등에 관련된 사료임과 동시에, 콘텐츠 자원으로써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로 정의하였다. 즉 사료 유형평가 상의 1등급 대상임과 동시에 민주화운동 역사상의 핵심 인물, 단체, 사건에 관련된 사료로서 콘텐츠 자원으로 필수적으로 활용해

야 할 대상을 말한다. 여기서 콘텐츠 자원으로서의 대상이란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하여 출판 및 교육, 온·오프라인 상의 전시, 방송 및 언론자료 등 국가적 차원의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아카이브에 대한 전략이 평가 및 보존차원을 넘어 이용·열람 등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Menne-Haritz 2001)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를테면, 2007년도에 사료관에서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두 가지의 '기록정보콘텐츠'(문익환과 통일운동, 1970년대 노동운동 등)를 구축했는데, 여기에 활용한 사료의 대부분은 1등급에 해당하는 사료를 소개하고 있다.

2등급 사료는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상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 인물, 사건, 단체 등에 관련된 사료로, 그 내용적 가치가 높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2등급 대상 사료는 유형평가상의 1등급 대상임과 동시에 민주화운동 역사의 핵심 인물, 단체, 사건에 관련된 사료를 의미한다. 이와 아울러 세밀한 내용 분석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을 확정하게 되는데, 내용적 가치 판단을 수행하기에 앞서 쉘렌버그가 제시한 전제를 기본적으로 감안하였다. 우선 정확한 가치평가 기준은 수립할 수 없으며, 가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가치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이용자 및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그 기준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의 평가 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정 내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Schellenberg 2005. 44-46).

쉘렌버그의 오랜 미시평가 경험을 통해 도출

된 이러한 노하우를 감안하며, 민주화운동 사료의 내용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우선 사료에 포함된 정보의 유일성 측면으로, 이는 사료에 수록된 정보가 다른 사료들에서는 완전하고 쓸 만한 형태로 발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Schellenberg 2005. 38). 정보의 집중도 역시 내용적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사항으로, 사료 안에 다양한 인물, 사건, 현상, 내용 등이 들어 있거나 단일 사건 내지 인물, 단체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면서도 풍부한 내용이 수록된 경우를 의미한다(Boles 2002. 58). 또한 독창성 및 타 기록과의 연관성과 같은 속성 역시 내용적 가치평가의 준거가 되며(Brichford 1977. 2-11), 일반적으로 생산연대가 오래 될수록 사료의 희소성 면에서 가치가 높다는 점(Schellenberg 2005. 39)을 감안해 생산연도 역시 준거로 삼았다.

해당 사료에 수록된 정보가 다른 사료에도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 사료가 타 보존소 및 기관에도 소장되고 있는지 여부도 내용적 가치 판단의 준거로 삼았으며, 동일 내용이 서로 다른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보존기술 및 보존비용 상의 우선순위 역시 준거로 활용하였다. 사료의 연계성 역시 평가 상의 핵심 준거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해당 사료가 타 사료의 이해에 전제가 되는 경우, 해당 사료가 인물, 사건, 단체 등의 활동 재구성에 중요한 경우 및 사료 자체로서보다는 타 사료와 연계될 때 집합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료 자체의 내용적 측면과 함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또한 준거로 삼았는데, 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형태 및 매체 상 희귀성을 지닌 원본 사료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사료 등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개별 사료 평가 상의 다양한 이론 및 민주화운동 사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적 가치 평가를 위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상의 희소성
 - 정보의 유일성 측면(해당 사료에 수록된 내용이 타 기록 유형에서 볼 수 없는 대상)
- 형태적 희소성
 - 정보를 수록한 기록 형태상의 유일성 측면
- 순수 박물관적 가치
 -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록의 형태 및 매체 상 희귀성을 지닌 원본 기록
- 예술적 가치
 -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원본 기록
- 기록의 생산연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록 생산 및 관리 보존이 어려웠던 1970년대까지의 기록
-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의 집중도
 - 기록 안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물, 단체, 사건,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 기록 안에 단일 사건, 인물, 단체 등에 대한 풍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 정보의 정확성
 - 해당 사료의 내용이 원본으로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
- 타 기록과의 연계성
 - 해당 사료가 타 사료들의 이해에 전제가 되는 대상

한편 개별 사료에 대한 내용분석 까지 수행한 후 결정된 최종 평가등급 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표 1>과 같은 '평가등급 대상목록'을 작성토록 하였다. 실제 내용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결과는 평가자의 견해 및 식견, 경험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고, 또한 개별 평가자 역시 유사한 사료에 대해서도 오늘과 내일의 평가 결과가 차이가 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단일 사료군에 대해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가치 판단 결과를 논의하였지만 이 역시 일정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

<표 1>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등급 대상목록 샘플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가대상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관련 연합단체 성명서 • 핵심 단체의 성명서 • 핵심 단체의 결의문 • 핵심 단체의 건의문 • 핵심 인사의 개인 성명서 • 핵심 인사의 개인 결의문 • 핵심 인사의 탄원서 • 핵심 사건 관련 재판자료 • 민주인사들의 공동 성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의 외국 신문스크랩 •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회원가입서(철) • 민주화운동 사건 기념식 관련 사료 • 민주화운동 열사 추모식 관련 사료 • 민주화운동 단체의 조직구조가 반영된 명단 • 핵심단체 주최 행사의 식순 • 일반 노조 규약집 • 일반 노조 회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와 생산일자 파악 불가능한 문서 • 신문스크랩 • 초대장 • 카드 • 민주화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소송 관련 재판 자료 •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영수증 •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접수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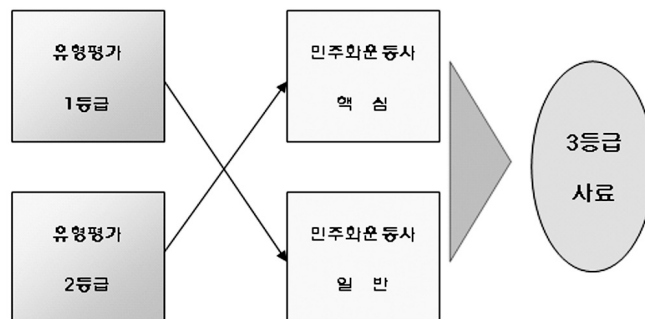
한 점에서 평가등급 대상목록 작성은 개별 사료의 내용평가 시 발생하게 되는 주관성의 개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자마다의 편차를 최소화시켜 주게 된다. 그리고 평가등급 대상목록은 해당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료 유형을 파악해 목록화 시키게 되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가게 된다.

3등급은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상의 핵심 인물, 사건, 단체 등에 관련된 사료로 내용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거나, 일반 인물, 사건, 단체 등에 관련된 사료 중 내용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상”으로 정의된다. 3등급 평가대상 사료는 「사료 유형평가 기준」 및 「사료 내용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 연산결과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형평가 등급이 2등급이고 민주화운동사에서의 중요도가 핵심이거나, 유형평가 등급이 1등급이고 민주화운동사에서의 중요도가 일반인 대상을 말한다. 그리고 앞선 2등급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사료에 대한 세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을 책정함과 더불어 그 결과를 평가등급 대상목록으로 작성하게 된다.

4등급의 정의는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료 중 유형이나 내용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대상”으로, 유형평가 등급이 2등급이고 내용평가 등급 역시 일반으로 책정된 대상을 말한다. 그리고 5등급 사료는 “한국 민주화운동과 별 관련이 없는 단순 자료 성격의 사료”로 정의되는데, 민주화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단순 복사물, 홍보물, 신문스크랩, 일반도서 등이나, 자료 자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없지만 해당 인물 및 단체, 사건의 이해에 부분적으로 일조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평가등급 책정 방식 외에도, 각 평가등급 마다의 예외사항 역시 체계적으로 목록화 시켜 평가에 활용토록 하였다. 개별 사료의 내용평가에 수반되는 주관성의 배제 및 편차의 최소화 그리고 평가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명료한 평가 메커니즘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 평가의 일정 부분을 공식화시켰지만, 사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이러한 공식화된 가치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평가 상의 예외사항들을 <표 2>와 같이 일반화해 목록화 시킨 다음,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1등급을 상향시키거나 하향



<그림 5> 3등급 평가선별 메커니즘

〈표 2〉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 예외사항 목록 샘플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작가의 민주화운동 관련 문학작품이 친필원고일 경우 - 핵심사건에 대한 핵심 인사들의 발언 내용 녹취문 - 핵심사건 관련 재판 자료(판결문/ 진술서/ 공소장 등)가 원본일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사건을 다룬 후보(예: 안동사건 공판 참관기) - 핵심단체의 핵심사건 관련 행사에 대한 일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동문지가 단순한 동문소식 등이 아닌 정세 및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많을 경우 - 신문스크랩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의 주장이 담겨있는 직접 기고문 - 시간·장소·주최 등의 기본 내용 외에 해당 행사나 사안에 대한 상세정보를 포함한 안내문 등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단체의 규약/ 강령/ 회칙 등이 초안일 경우 - 핵심단체의 부설기관 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 중 민주화운동과 별 관련 없는 내용일 경우 - 일반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규약/ 강령/ 회칙 초안 - 당시 정세와는 별 관련 없이 교단이나 개인적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 - 민중가요 악보나 가사(개사) 내용의 낱장 복사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스크랩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기사모음일 경우 -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단체(회사)의 재무재표/감사보고서 - 생산단체, 일자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단순 주소록 등

사킴으로써 평가 시 나타나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처토록 하였다.

4. 사료 관리조치 차별화 전략

최근 평가는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는 별도의 분리된 과정이 아닌, 기록관리 전체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단계로 재정의 되고 있다. 쉐렌버그가 체계화한 라이프사이클에 바탕을 둔 미시평가 논리에서는 보존할 가치를 지닌 대상을 ‘아카이브’(Archive)로 별도 규정 하면서, 아카이브를 선별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종착점으로 인식해왔다 (Atherton 1985-1986, 44). 그리고 이러한 아카이브의 선별은 기록의 ‘탄생’으로부터 ‘재탄생’에 이르는 단선형의 과정 속에 기록이 더 이상 현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본래적 가

치가 소멸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영구보존 대상을 평가하고 기술해 보존하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핵심 과업으로 자리해왔다(McKemmish 1994).

하지만 최근의 컨티뉴엄 사고 속에 평가는 더 이상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SAA에서는 평가를 비현용단계에 생성된 2차적 가치를 선별하는 차원을 넘어, 기록물에 내재한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구보존 내지 기록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대로(Bellardo & Bellardo 1992, 3), 평가는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뿐만 아니라 기록물에 내재된 가치를 기반으로 기록관리 조치를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앞선 2장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그동안 민주화운동 사료는 가치의 분석 없이 일률적인 관

리 조치를 부여하는데 기인하여 저가치 사료의 누적, 사료의 처리기간 및 서비스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료의 질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사료별 관리조치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도출되며, 이에 사료의 가치 등급에 따라 등록, 검수 조치의 차별화 및 보존 전략의 차별화, 그리고 서비스 전략의 차별화를 시도해, 사료 관리에 소요되는 자원 및 인력, 시설 활용상의 최적화 구현을 지향코자 하였다.

〈표 3〉은 이러한 전략 하에 평가등급별 사료 관리 조치의 차별화 내역을 도식화 한 것이다. 보존상태 평가까지 완료한 후 도출된 총 9개 등급의 사료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사료들은 ISAD(G)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기술요소 전부를 등록하게 된다. 반면 내용적 가치가 낮은 4등급 사료는 생산자·표제·생산일자·유형·계층 등 ISAD(G)에서 권고하는 필수요소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5등급 사료에 대해서는 생산자·표제·생산일자만을, 그리고 폐기대상 사료는 등록치 않고 폐기목록

만을 작성토록 하였다. 검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료가 지정된 등록항목에 맞게 등록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검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 3등급 이상에 한해 실시토록 하였는데, 수량·보존상태·상자번호·등록번호·기증자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실물상태 검수와 함께 실물을 바탕으로 등록항목의 정확성을 검토하게 된다.

평가기술은 민주화운동 평가체계 구축 과정에서 신설된 프로세스로, 민주화운동 역사상에서 가치가 높은 1등급 및 2등급에 한해 수행토록 하였다. 이들 고가치 사료에 대해 역사적 맥락 및 주요 내용과 더불어 사료의 가치를 기술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고가치 사료에 대한 이해성을 증진시키고 열람 및 활용상의 편의성을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이징 절차는 사료의 온라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역시 3등급 이상의 사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단 콘텐츠 자원으로서의 활용도는 사료의 내용적 가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내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콘텐츠 자원

〈표 3〉 최종 평가등급별 사료관리 조치 내역

최종 사료등급	등록	편철	검수	평가기술	디지털이징	보존처리
1등급 B	전부등록	○	○	○	○	M/F
1등급 A	전부등록	○	○	○	○	미처리
2등급 B	전부등록	○	○	○	△	M/F
2등급 A	전부등록	○	○	○	△	미처리
3등급 B	전부등록	○	○	×	△	M/F
3등급 A	전부등록	○	○	×	△	미처리
4등급	기본등록	○	×	×	×	-
5등급	부분등록	○	×	×	×	-
6등급	미등록	×	×	×	×	-

※ 참조: ○ 해당 프로세스 필수 수행 / △ 해당 프로세스 선택 수행 / × 해당 프로세스 미처리

으로서 가치가 높은 1등급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으며 2등급과 3등급 사료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주제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존처리는 사료의 훼손도나 보존 상태 등을 점검한 후, 영구보존을 위해 마이크로 필름 형식으로 병행 보존본을 만드는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보존처리는 최종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인 사료를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료에 동일한 보존조치를 취하는데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핵심 사료에 보존 및 활용상의 조치를 강화시킨다는 전략적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등급이 1~2등급인 대상은 보존상태 평가가 '중, 하'일 경우 마이크로필름으로 병행 보존하며, 최종 평가등급이 3등급인 대상은 보존상태 평가가 '하'로 책정된 경우에 한해 병행 보존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료의 평가등급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는 사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높은 가치를 지닌 사료에 관리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가치의 구분 없이 모든 사료에 동일한 관리조치를 부여하는데서 비롯된 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자원 활용상의 효용성 역시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가치가 높은 사료에 우선적으로 관리조치를 부여함으로써 고가치 사료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 역시 제공해 주게 된다.

5.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는 가치 선별 논리를 지향하면서도, 가치의 경중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를 통해 사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성을 최적화시킨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중복본 위주의 폐기대상을 등록단계에서 골라내는 소극적 선별 논리를 넘어 사료의 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질서가 부재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 처리에 당면하여 한정된 자원 활용상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매뉴스크립트 기관들에 좋은 선례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본고에서 설계한 평가체계 구축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기실 수많은 기록물의 가치를 수학의 공식처럼 선별할 수 있게 하는 가치 기준 마련을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보완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평가등급 기준의 일반화 및 명료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평가등급 기준은 최대한의 객관성 및 보편성 확보를 의도하였지만, 전체 민주화운동 사료를 포괄하기에는 사실상의 한계를 지닌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장기간의 평가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이러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평가등급 기준을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킴과 더불어 어느 평가자가 보

더라도 용인할 수 있도록 명료화시켜야 한다.

둘째, 평가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수집 현장에서의 사전적 평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일선 실무현장에서의 수집 여건 상 증거자가 배석한 자리에서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전적 평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증거자와의 협상에서 평가를 분명히 명시함과 더불어, 증거자와의 협력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불필요한 사료군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수집 현장에서의 사전적 평가가 수행된다면 수집 이후 사료의 전후 정황을 모르는 평가자의 시간적 노고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평가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실질적인 절감이 기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다. 현대 기록관리 환경에서 평가는 실제적으로 광범위한 범주의 일반 기준 속에 기록을 대입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방대한 양의 기록 홍수 속에 하나하나의 기록이 지닌 세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 역시 기록 속에 존재하는 수많

은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의 일반적 기준을 명료화시키는 방향성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평가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시각에서의 수집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 환경 속에, 전 세계적으로 수집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집정책은 해당 기록보존기관의 궁극적 사명을 명시한 것임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록보존기관이 수집하는 기록의 범위 및 성격을 사전적으로 결정짓게 하는 핵심적 도구라 할 수 있다. 수집정책이 부재할 경우 해당 기록보존기관에 수집되는 기록의 범위 및 성격은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수집 이후 평가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소요 역시 커지게 됨은 자명하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의 수집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한다면,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상의 집합적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사료군의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의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명훈. 2002.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선별 방식 및 가치 범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3-40.
 김명훈. 2005.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 91-122.

김명훈, 현종철. 2006.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 사진기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7(3): 139-16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2007. 민주화운

- 동 사료 평가등급 기준(안).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 구축사업 최종보고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검수지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2005. 『사료수집 및관리업무규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2005. 『수집사료 선별정리지침(안)』.
- 이현정. 2006. “수집형 기록관의 전자제어시스템 분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리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 91-131.
- 임나래. 2005. “가치분석에 의한 기록관리 선순환 체계의 모색.” 『기록학연구』, 15: 263-306.
- Atherton, Jay. 1985-1986. “From Life Cycle to Continuum: Some Thoughts on the Records Management-Archives Relationship.” *Archivaria*, 21: 43-51.
- Bearman, David & Lytle, Richard. 1985-1986. “The Power of Principle of Provenance.” *Archivaria*, 21: 14-27.
- Bellardo, Lewis & Bellardo, Lynn Lady. 1992. *A Glossary for Archivist, Manuscript Curator, and Records Manager*.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Boles, Frank. 2002. Archival Appraisal. 정부 기록보존소 역. 『미국의 평가 업무』.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 Booms, Hans. 1987.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69-107.
- Brichford, Maynard J. 1977. *Archives & Manuscripts: Appraisal and Accessioning*.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Cumming, Judi. 1994. “Beyond Intrinsic Value Towards the Development of Acquisition Strategies in the Private Sector: The Experience of the Manuscript Division,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rchivaria*, 38: 232-239.
- Eriksen, August Wiemann. 1994. “The Debate on Appraisal: Recurrences and Traps.”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on Archival Theory and the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tockholm: Swedish National Archives.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mmittee on Archives. 2004. *Bibliography on Appraisal(Draft)*. Paris: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McKemmish, Sue. 1994. “Understanding Electronic Recordkeeping Systems: Understanding Ourselves.” [cited 2008. 4.11].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smckeram.html>>
- Menne-Haritz, Angelika. 1994. “Appraisal or Selection: Can a Content Oriented Appraisal be Harmonized with the

- Principle of Provenance?"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on Archival Theory and the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tockholm: Swedish National Archives.
- Menne-Haritz, Angelika. 2001. "Access-the Reformulation of an Archival Paradigm." *Archival Science*, 1(1): 57-82.
- Miller, Fredric M. 2002.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서울: 진리탐구.
- Momryk, Myron. 2001. "National Significance":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Acquisition Strategies in the Manuscript Division,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rchivaria*, 52: 151-174.
- Phillips, Faye. 1995. *Local History Collections in Libraries*.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 Schellenberg, Theodore R. 2005. "The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오향녕 역. "현대 공공기록의 평가." 『기록학의 평가론』. 서울: 진리탐구.
- Shepherd, Elizabeth & Yeo, Geoffrey. 2003. *Managing Records: A Handbook of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Facet Publishing.